

# 안전은 생활이고, 생명입니다.

한국남부발전(주)신인천북합화력본부 조영인 과장



## 안전은 타인(他人)의 일이 아니라 바로 자신(自身)의 일입니다.


하루 종일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는 무더운 기운을 모두 땅속 깊은 곳에 묻어 버린 듯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한들거리는 이름 모를 들꽃이 아름답다. 하늘은 온통 에메랄드 빛 카펫을 깔아 놓은 듯 유리처럼 투명하기 그지 없는 오늘, 멀리 영종도를 잇는 다리와 그 옆 높다란 굴뚝을 이정표 삼아 한국남부발전(주)신인천북합화력본부의 조영인과장을 만나러 길을 달렸다.

## 모든 근로자의 건강과 그 가족을 지켜낸다는 자부심으로 정년이 되는 날까지 무재해를 이어나갈 터.

한국남부발전(주) 신인천북합화력본부의 조영인 과장은 올해로 6년째 이곳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안전관리자이다. 처음 만난 그의 모습은 내년이면 쇠를 바라보는 나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할 정도의 동안(童顏)과 조금은 까만 피부의 건강미 넘치는 모습이었다. 3형제 중 차남인 그는 가정형편 상 상고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했지만, 그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계공학과에 진학했다. 남들보다 2년이나 늦은 대학생활 이었지만 공학이 적성에 맞았는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다고 한다.

군대를 제대하고 한국남부발전(주)(구 : 한국전력)에 입사하여 교대근무 3년, 설비유지 관리부서인 기계부에서 10여 년간 현장근무를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부서의 1년 후배에게 중대사고가 발생하였다. 사소한 실수가 그만 엄청난 사고로 이어졌고 그 사고는 후배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옆에서 그러한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조영인과장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그러한 계기로 2000년 5월 그는 안전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의 나이 43세, 부서 이동과 함께 이루어진 조직 개편에 따라 선임자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버려 처음부터 혼자 안전관련 업무를 보게 된 것이다.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야 하는 그로서는 힘겹고 고된 날들의 연속 이었지만 지난날 후배의 쓰라린 상처를 생각하며 업무에 박차를 가했다고 한다.

한참 업무에 적응하려고 하려던 때, 200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발전소가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사업장에 포함됨에 따라 그에게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승인받으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남은 기간은 1~2개월, 개념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은 너무나 넘기 힘든 산이었다. 하지만 그는 밤을 지새우며 노력한 결과 무사히 승인을 받을 수 있었고, 그 후 얼마 있지 않아 그는 다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도입에 도전하여 성공리에 도입, 정착시키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온 몸으로 부딪치며 얻은 값은 경험과 지식에서 그는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을 안전과 함께 걸어왔다. 뒤돌아보면 너무나 시간이 빠른 것 같으며 웃는 그의 모습에서 땀 흘리며 노력한 정직한 농부의 흐뭇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정년이 다할 때까지 무재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조영인과장, 올 2월에 무재해 6배수를 달성하였고 정년이 다하는 날까지 무재해를 이어나갔으면 하는 그의 바램. 지금까지 노력해온 그의 열정에서 그것은 꿈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임재근 기자>